



## 교수임용현황으로 살펴본 해외박사 우대 실태

조 철 현 | 문화일보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우리나라 대학은 최근 몇 년 새 양적 성장과 함께 학문적 외연도 넓혀 왔다.

하지만 연구 인력을 길러내는 자생적인 학문생산 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컨대 국내박사보다 해외박사 출신자를 더 신뢰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토종박사가 상대적인 홀대를 받다 보니 ‘국내대학은 외국 대학원의 학부’라는 자조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국내박사와 해외박사를 차별하는 배경에는 토종박사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 ■ 해외 유학파를 우대하는 대학사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나, 또는 미래에 교수로 임용될 강사들의 출신 학교를 살펴보면 명문대일수록, 혹은 나이가 젊을수록, 해외 유학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미국대학 출신자가 대부분으로, 학계에서는 미국이 한국 학계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교수신문이 최근 2005년 하반기 교수 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신입 교수 중 국내박사 출신자가 60%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하반기에는 50%대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전체 119개 대학에서 총 1135명을 교수로 새로 임용했다. 임용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박사 출신자의 교수 임용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신입 교수 1135명 가운데 박사학위자는 874명(77%)으로 이 가운데 국내박사는 461명(52.7%)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상반기부터 해외박사보다 토종박사의 신입 교수 임용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올해 하반기 임용된 신입 교수 가운데 국내박사 비율이 가장 높은 학문 분야는 의약학 분야(104명, 83.2%)이다. 이어 공학(100명, 56.2%), 예체능(29명, 54.7%), 이학(57명, 52.8%), 인문(44명, 51.2%)계열 순이었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의 해외박사 선호 경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어문(10명, 31.3%), 사회(105명, 39.2%)계열의 경우 국

내박사 비율이 각각 31.3%(10명), 39.2%(105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회 계열은 절반이 '미국박사' 출신자로 채워졌다. 농수해양 분야의 경우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비율이 같다.

서울대의 경우 토종박사 비율은 34.8%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서울대학교 교무처가 밝힌 '전임교원 박사학위 취득국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중 34.8%만이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국내외 박사학위 동시 취득시 국내에 포함). 단과대별로는 인문대 61.3%, 사회대 93.6%, 자연대 89.1%, 공대 86.3%, 농생대 86.1%에 해당하는 교수가 해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 미국대학 박사 출신자가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사회 주도

해외박사 가운데 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우대 현상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하반기 전체 신입 교수 가운데 32%인 280명이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일본(41명), 독일(28명), 영국(23명), 중국(9명), 프랑스(7명) 순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의 경우 미국박사 출신자에 대한 우대 현상은 더욱 심하다. 해외박사학위를 소지한 서울대 전체 교수 중 52.8%가 미국박사학위 취득자이다. 서울대 교수의 과반수가 미국박사 출신인 셈이다. 특히 거의 국내박사로 구성된 의·치대 교수를 제외할 경우 절대 다수의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 해외박사 출신 교수 가운데 86%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사회과학대의 뒤를 이어 미국박사 비율은 자연과학대가 78%, 공과대학이 76%를 차지해 각각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 57%, 인문대학 36%, 생명과학 24% 순이다. 의대는 3%로 가장 낮다.

서울대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미국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지난 1월 미국을 제외한 해외대학 중 미국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다. 미국 시카고대가 지난 1999년부터 5년간 미국박사학위 취득자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1655명을 배출해 2175명을 배출한 버클리대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이다. 미국 내 대학을 제외할 경우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미국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는 이들 미국박사 출신 교수들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국박사 출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미국 유학을 권유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미국박사학위를 취득해 귀국할 경우 교수 신규 임용 때 미국박사 출신 교수들이 많은 학교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 해외대학 대학원 행렬 넘쳐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대학원보다는 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세대 대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부과정까지 잘 다니다가도 교수 임용이나 연구환경의 측면을 바라보고 해외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버리니 국내 대학원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등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대학 대학원으로 떠나는 것은 교육 및 연구환경 부실로 인해 자생학문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국내대학의 박사과정을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위 취득 후 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서글픈 현실은 교수 임용 때 연구논문의 질과 영향력보다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등급을 차별화해 출신 학교의 점수가 교수 임용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 없는 지도교수 밑에서 제대로 연구할 실험실과 장비도 부족한 데다, 쥐꼬리만한 장학금을 받아가며 교수의 잔심부름까지 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도 우리의 인재를 외국으로 밀어내는 또 다른 원인이다.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면 국내대학의 교수직이 기다린다는 암묵적 법칙이 공유되고 있는 한, 국내 대학원은 자조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 해외박사 선호가 미치는 해악

이렇듯 엄청난 수의 외국 유학 출신자들이 국내 우수 대학들의 교수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내대학의 경쟁력이나 연구력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대단히 역설적이다.

대학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 특히 미국 유학파이다보니 국내 대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문·가치 체계의 미국 종속 현상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박사 출신자들이 우대받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의 학문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했던 유학파들의 공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의 교수 요원을 외국 대학원에 위탁, 양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전과 달리 우수한 해외박사 교수들이 빼곡하다. 그런데도 이들이 제자의 유학 추천서나 써주는 일로 안주한다면 연구 중심 대학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김종업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한신문에 실은 칼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대개 지식인, 관료, 기업의 경영진과 같은 한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된다”면서 “엘리트 집단의 충원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 사회가 생산한 지적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고 말했다. 미국 편중 현상이 궁극적으로 미국 종속적 학문·가치 질서 양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 ■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에서 학위를 땀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들어 국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토종박사들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출신 박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잇따라 외국 명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

국내에서 아무리 경쟁력 있는 박사를 배출해도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면  
연구인력 수급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한시적으로 대학 교수 임용 때  
국내박사 교수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국내박사 할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박사들에게 학문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수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있따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키운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국내대학에서도 ‘해외 간판’ 지상주의에서 탈피, 실력을 중시하는 교수 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학원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내 학문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각 학문 분야의 연구력에서 대학원생의 몫은 지대하다. 미국이 세계 과학계의 주도권을 쥔 것도 알고 보면 세계 각국에서 제 발로 찾아가는 우수한 두뇌들 덕분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경쟁력 있는 박사를 배출해도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면 연구인력 수급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한시적으로 대학 교수 임용 때 국내박사 교수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각 대학의 교수직 중 일정 비율을 국내박사에게 할당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부터 학부 학생을 뽑으면서 지역균형 선발제를 도입해 지방 학생들을 다양

하게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많은 대학들이 여교수 채용 할당제를 도입해 교수성비의 불균형을 줄여가는 성공 사례도 있다.

물론 국내박사 할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박사와 해외박사를 똑같이 경쟁시켜서 그 중에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내박사라는 이유로 우대한다면 더이상 대학은 발전은 없고 정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박사들에게 학문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수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연구 실정을 익히 아는 국내박사가 외국에서 학위만 마친 박사보다 더 대접받고 있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박사후 과정이나 박사과정 중의 유학으로 외국의 연구 기술을 배우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잠재력 있는 학문 후속 세대를 배출해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 조성하고 국내 학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내박사 할당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

면이 있는 것이다.

반가운 것은 최근 학계에서 국내박사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교수로 임용되기는커녕 실직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토종박사'를 구제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은 국내박사들에게 교수 임용의 길을 넓혀 주는 것은 물론 교수 임용때 타 대학 출신 토종박사들에게도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대학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도 토종박사를 홀대해 온 대학들의 자기반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대학들이 토종박사 키우기에 머리를 맞댄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타 대학 출신에게 문호가 개방된다면 동종교배의 폐단을 씻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터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교수 사회부터 열려야 한다. 해외박사와 토종박사를 불문하고 학문적 역량만이 교수 임용의 절대 기준이 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문호**

---

#### 조철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일보 9기 공채로 입사하였고, 현재 문화일보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로 재직 중이다.

